

후방복무병사의 군대부적응에 관한 연구

박 영 주(부산디지털대학교), 정 원 철(신라대학교)

I. 서론

군은 엄격성과 통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군인은 일반인에 비해 긴장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특히 휴전상태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정들은 예외 없이 군복무에 상당기간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청년의 군 입대는 가족과의 분리, 급격한 신체적 움직임의 증가, 강한 통제와 규율에 대한 복종, 수면패턴의 변화, 책임수행의 의무, 지속적인 긴장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병사들은 군생활에서 긴장과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히 진행 중인 핵가족화와 학업중심의 가정교육 그리고 자기중심의 신세대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세대'로 통칭되는 청년들이 군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 일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구승신, 2004; 유홍위, 2005).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군기 안전사고 사망자 118명 중 자살자가 58.5%에 해당하는 6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육군의 경우 안전사고 사망자 99명 가운데 64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에서 당한 폭행경험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나 후유증을 일으키며(장성대, 2003), 병사의 자살, 탈영, 정신장애를 포함한 크고 작은 군기사고의 대부분이 군 부적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윤주태, 2003; 권태은 2003)는 군 부적응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종 군기사고를 방지하고 군 생활이 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군적응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병사 개인의 측면보다는 군의 전력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구승신, 2004), 부적응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조차도 일부 변인과 군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거

나 특정병인이 군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따라서 병사의 군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정체성인 체계성과 통합성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사의 군적응 수준과 영향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실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군적응에 차이가 나는가? 둘째, 개인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군적응에 기여하는 정도와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연구에서 밝혀진 군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군조직과 부적응

2. 병사의 군 부적응 요인

- (1) 개인적 특성요인
- (2) 심리사회적 요인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도지역의 부대에 복무중인 이병부터 병장까지의 병사들이다. 부대의 선정은 본 연구를 이해하고 조사를 허락하는 육군 1개 사단을 유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병사는 328명의 보병이며, 이들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 해당 사단의 담당관에 의해 선발되었다.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부대를 방문한 후 집단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336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일부를 제외한 328부가 최종의 자

료분석에 이용되었다.

2. 자료분석

분석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현황을 빈도분석을 통해 파악하였고, 일반적 속성에 따라 적응양상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Anova검증을 적용하였으며,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인 병사의 군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가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표-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n=328)

특성	구분	n(%)	특성	구분	n(%)
계급	이병	60(18.3)	경제수준	상(500만원 이상)	35(10.7)
	일병	93(28.4)		중(200-500 미만)	159(48.5)
	상병	127(38.7)		하(200만원 미만)	134(40.9)
	병장	48(14.6)			
학력	고졸	36(11.0)	제대 후 진로	희망적	165(50.4)
	대학재	277(84.5)		보통	140(42.7)
	대졸이상	15(4.6)		비관적	23(7.0)
입대태도	긍정적	108(33.0)	입대태도	부정적	220(67.0)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급은 이병 60명(18.3%), 일병 93명(28.4%), 상병 127명(38.7%), 병장 48명(14.6%)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학재학이 전체 277명(84.5%)으로 가장 많았다. 가계의 월 소득수준은 상 35명(10.7%), 중 159명(48.5%), 하 134명(40.9%)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입대태도와 제대 후의 진로에 대한 인식에서는 과반수이상의 병사들이 입대에 대해 회의적이며 제대 후의 진로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군적응의 차이

<표 2>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병사들의 군적응도를 나타내고 있다. 병사들은 계급과 학력, 가계소득에서는 군적응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사의 입대태도와 제대 후의 진로에 대한 기대에 따라 군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군적응도의 차이 (n=328명)

특성구분	속성	N	평균	표준편차	F/t
계급	이병	60	3.14	.751	.344
	일병	93	3.06	.682	
	상병	127	3.10	.666	
	병장	48	3.18	.659	
학력	고졸	36	3.21	.748	.484
	대재	277	3.10	.671	
	대졸이상	15	3.08	.788	
경제수준	상	35	2.97	.784	.847
	중	159	3.13	.647	
	하	134	3.11	.700	
입대태도	긍정적	108	3.32	.654	16.440***
	부정적	220	3.00	.675	
제대 후 진로	희망적	165	3.22	.663	4.833**
	보통	140	3.02	.696	
	비관적	23	2.85	.647	

***p<.001 **p<.01 *p<.05

3. 군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제 변수가 투입된 최종모델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를 순서별로 보면 상관과의 관계($\beta=.592$), 동료와의 관계($\beta=.169$), 자존감($\beta=.111$), 계급($\beta=.106$), 부대시설($\beta=.095$) 순이다. 본 연구결과 심리적 요인과 가족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 요인과 가족환경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한 선행연구와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들이 심리적 요인과 가족환경 요인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평균차이 검증으로 분석을 수행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병사의 군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측면보다는 개인적 측면과 환경의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4> 군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투입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β	t	β	t	β	t	β	t
(일반적 특성)								
계급	.047	.859	.053	.976	.059	1.100	.106	2.607*
학력	-.068	-1.440	-.057	-1.047	-.049	-.942	-.014	-.368
경제수준	-.045	-.878	-.057	-1.027	-.098	-1.776	.006	.150
제대후 진로	-.176	-3.154**	-.136	-2.335*	-.044	-.753	-.019	-.438
입대태도	-.203	-3.761***	-.202	-3.757***	-.182	-3.407**	-.031	-.773

(가족환경 요인)								
부부관계			-.008	-.126	-.015	-.257	-.005	-.121
양육태도			.019	.396	-.029	-.490	.015	.361
가족지지			.134	2.065*	.079	1.226	-.013	-.273
(심리적 특성요인)								
스트레스대처					.035	.626	.003	.067
자기주장성					-.006	-.101	.030	.672
감각추구성					-.082	-1.542	.004	.109
자존감					.270	4.112***	.111	2.249*
충동성					-.073	-1.211	-.027	-.602
(부대환경 요인)								
부대시설							.095	2.151*
동료관계							.169	3.816***
상관과의 관계							.592	12.293***
R ²	.080		.097		.181		.587	
R ² 변화량			.017		.084		.406	
F	5.571***		4.284***		5.304***		27.424***	

***p<.001, **p<.01, *p<.05 계급(이병=0), 학력(고졸=0), 경제적 수준(하=0), 제대 후 진로(비관적=0), 군 입대에 대한 태도(부정적=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들의 개인적 특성인 입대태도, 제대 후의 진로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병사의 군 적응의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개인적 특성요인 중에서 제대 후 진로와 입대태도는 병사의 군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심리사회적 요인 중에서 자존감과 상관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부대시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 변수가 투입된 최종모델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를 순서별로 보면 상관과의 관계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그 다음으로 동료와의 관계, 자존감, 계급, 부대시설의 순이었으며, 가족환경 요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이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없었던 계급은 회귀분석 결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병사의 군적응 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상관과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가 군의 부적응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관과의 관계는 여타의 요인을 압도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이었다. 상당수의 군기사고가 고참병과의 갈등이나 압박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후임병과 선임병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병사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내무반을 현대화하여 병사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조건에서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대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작금의 병영시설은 신세대 병사들에게 익숙한 아파트나 학교에 비해 불편하고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입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투명한 징병제 실시, 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 병역의무 이행의 긍정성 홍보가 포함된다. 또한 각 훈련소 단위로 군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교정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교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군복무를 바로 알리는 홍보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결과 계급이 낮은 병사가 상대적으로 군대부적응이 큰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자존감이 병사의 군 적응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접근이 요청된다. 자존감과 자살의 관계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만 자존감을 갖지 못하거나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면 자살행동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이경진, 2003) 특히 군조직의 특성상 자존감의 상실은 군기사고를 부를 가능성을 높인다.

다섯째, 병사의 군 부적응 문제를 포함하여 군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사회문제에 대해 사회복지분야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병사의 군 부적응에 환경적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환경의 조정과 중재'를 중시하는 사회사업(social work)이 군 부적응 문제해결에 동원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병사의 군적응 문제는 병사 개인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군체계와 지역사회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